



## 人造과일 發明의 先頭走者

宇新模造化社 洪 性 模 사장



〈洪 性 模 사장〉

강인한 의지의 사나이로 정평이 난 人造과일 發明의 先頭走者 宇新模造化社 洪性模사장.

야무진 體軀에 번뜩이는 눈동자에서만도 예사 사람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發明界에 自手成家한 모범 發明企業인으로 손꼽히는 洪사장은 이제 人造과일에 관한한 世界第一을 자랑한다.

故鄉인 忠南 玄예산에서 국민학교를 卒業한후 무작정 上京한 그는

은갖 고생을 다했다. 낮에는 化學機械 工場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밤에는 夜間學校에 나갔다.

그가 人造과일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실로 우연이었다. 우연히 찾아간 造花가게에 진열된 人造花와 人造과일을 보고서 부터였다.

당시 그가 본 人造과일은 表面塗色만으로 처리되어 손으로 문지르면 色이 벗겨졌고, 어떤것은 그나마 오래된 탓인지 退色까지 되어 있었다. 그는 여기에서 色相이 벗겨지지 않고 退色되지 않는 새로운 「人造과일 製造方法」의 發明을 決心했다.

그러나 意慾과 自信만을 갖고 시작한 發明의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리 化學藥品을 混合해봐도 기대했던 人造과일의 色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合成樹脂만을 專門으로 취급하는 大企業에 技術開發 의뢰까지 하기도 했으나 大企業도 그같은 技術을 開發하지 못했다

며 巨액의 技術開發費를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技術開發 의뢰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研究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페인트를 비롯 무려 15종류 4백여명의 化學藥品을 混合해보는 15個月의 끈질긴 研究끝에 마침내 1979年 「人造과일 製造方法」을 開發, 特許 第10706號를 손에 쥐었다. 이어 1982年 뉴욕에서 열린 國際發明展에 出品하여 銅賞을 受賞하였고, 1983年 發明의 날에는 商工部長官 表彰을 받았다.

여기서 자신을 얻은 그는 그후 지금의 宇新模造化社를 설립하고, 계속 發明에 몰두한 결과 이제 80여건의 特許를 손에 쥔 發明企業人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또 최근에는 香내나는 人造과일에 이어 合合線이 없는 人造과일의 發明에까지 成功했다.

洪性模사장. 그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등 많은 나라의 바이어들과의 商談에 눈코뜰새가 없다면서도 마냥 즐거운 表情이다. (畝)